



4차 산업혁명 혁신 도시
독일 아헨(Aachen)
 경제협력 위해 안산과 손을 잡다



안산시 시정소식지 | NO. 442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감도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ansancity3](https://www.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blog.naver.com/cityansan [instagram.com/ansancity](https://www.instagram.com/ansancity)

발행일 2017년 6월 14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diansan.net www.bravoansan.net



시화호 조력발전소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경기도 ' 으뜸'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9.38% 차지... 도내 평균 두 배 규모

조력은 소양강댐 1.5배... 풍력은 소나무 185만 그루 심은 효과



“태양은 뜨겁고 바람은 거세다”

‘원전호기 줄이기’를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숲의 도시, 안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으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말 현재 안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은 9.38%로, 전국 지자체 평균 6.61%(2015년)이나 경기도 4.1%(2015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전체 에너지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안산 지역의 지난해 전체 에너지 발전량은 145만529TOE(석유환산톤)이며, 이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3만6천TOE이었다. 안산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것은 조력, 풍력뿐 아니라 태양광·태양열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 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열과 연료전지 등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시화방조제에 자리 잡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는 총 10기의 수차발전기를 가동해 연간 55만2천M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의 1.56배에 이르는 규모다.

바람이 거세다. 단원구 대부동 누에섬과 방아머리에서 2010년부터 발전을 시작한 풍력발전소에서는 지난해 1천1만7천8백KWh의 전력을 생산해 대부도 일대 전기 사용량의 12%를 충당했다.

태양도 한 몫 한다. 공공청사,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238곳에 설치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통해서도 상당량의 에너지 대체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햇빛도시 안산’을 실현하고자 개인주택과 아파트 베란다 및 옥상 등 총 1,185개 가구에 2,9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또한, 1.4MW급 안산시민햇빛발전소 13개소를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1MW급 태양광발전소 5개소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대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다. 시화조력발전소는 연간 31만5천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누에섬·방아머리 풍력발전소는 소나무 185만여 그루를 심었을 때와 같은 대기정화 효과를 각각 가져왔다.



대부도 에너지타운, 풍도 에너지 자립섬... 박차

대부도와 풍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큰 기대를 얻고 있다.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부도에는 LNG위성기지를 통한 도시가스 공급과 2.5MW급 연료전지·태양광·풍력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 체험시설, 신재생에너지 충전소, 스마트 팜 등을 포함하는 ‘대부도 에너지타운’이 조성되고 있으며, 야생화의 보고인 풍도를 신재생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풍도 융복합 지원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풍도에는 태양광 설비를 가구당 3kW씩 20가구에 설치해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감소시키며, 여촌체험마을 등 공공건물에는 71kW를 별도 설치한다. 또한 복지관 등 2개소에 자연순환식 태양열 설치 그리고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시스템) 1,150kWh도 계획돼 있다.

산업단지(스마트허브)의 대기개선을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건립’도 준비 중이다. 일일 45톤 처리능력을 갖춘 활성탄 공동재생시설은 연간 30,000Gcal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목욕탕과 찜질방 시설을 갖춘 건강랜드 등 폐열을 활용한 주민편의 시설도 포함돼 있다. 이는 기피·혐오시설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이라는 의미와 함께 환경시설을 통한 문화관광이라는 새로운 수익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1가구 1발전소 운영이나 안산시민햇빛발전소처럼, 시민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확대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 원전기를 안산에서 줄이는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중심 두 도시, “힘 모아 4차 산업혁명 이끌자” 독일 아헨, 안산 초청... 경제협력강화 약속



아헨시 전경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도시인 안산시와 독일 아헨특구시가 손을 잡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교류 등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대표단을 꾸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독일 현지를 다녀왔다. 이번 방문은 독일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안산시 대표단은 독일 현지시간으로 5월 29일 헬무트 엑슬베르크(Helmut Etschenberg) 아헨 특구시장을 만나 ‘신산업 육성과 기업 간 교류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경제와 기업분야에서 광범위한 교류관계를 수립, 양 도시가 파트너로서 스타트업(Start-up, 신생 벤처기업) 네트워크, 일자리창출, 연구인력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두 도시가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각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헬무트 엑슬베르크 시장은 “두 도시가 함께 산업체 육성과 공동 연구 과제 진행, 강소기업 지원 등 산업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자”고 답했다.

아헨 특구시는 독일의 MIT라 불리는 ‘아헨공과대학교’가 있으며,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이 산학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로,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인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을 이끄는 혁신도시로 꼽힌다.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미래형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안산시가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 모델과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산은 IT융합, 로봇,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개발 시설이 모여 있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에 유리해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나 국가산업연구단지로 최적지라는 평가다. 또한 기존 안산 사이언스밸리 외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89블록’ 개발 사업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 ‘비스바덴 축구장’ 벤치마킹도 병행

대표단은 현지시각 5월 31일 SV 베헨 비스바덴의 전용구장인 ‘브리타-아레나’ 스타디움을 방문, 토마스 프레켈 구단주 및 관계자들을 만나 구단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경기장 시설과 클럽하우스 등 선수단 지원시설을 둘러보며 안산그리너스FC의 운영에 도움이 될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브리타-아레나’ 스타디움은 경량 철골 구조로 짧은 기간에 신축됐음에도 지난 10년 동안 큰 안전사고 없이 운영되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모두 우수한 구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안산시, 영국 런던 방문

초지역세권 · 대부도생태관광... 도시재생 논의

안산시 대표단이 영국 런던을 방문해 전문가 그룹과 만나 안산시 도시재생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논의는 독일 아헨특구시의 초청에 따른 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27일 이뤄졌다.

대표단은 본격적인 독일 방문에 앞서 영국 런던대학교의 피터 비숍(Peter Bishop) 교수를 만나 안산시의 도시재생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템즈강 주변과 올림픽 파크 등 런던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지역을 둘러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표단은 안산의 초지역세권 개발과 대부도 생태관광전략 등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앨리스 앤 모리슨(Allies & Morrison)’를 방문, 그동안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자리에서는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며,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추후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공개될 예정이다.

안산시, 마이스산업 적극 추진 서포터즈 모집, 팸투어 진행 ‘기업회의와 휴양의 도시, 안산’ 추구

안산시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 지난 2월 한국MICE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업회의와 휴양의 도시, 안산’을 추구하고 있는 마이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포터즈 모집

안산시는 마이스산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이번이 2기다. 특히 안산 지역에만 국한됐던 1기에 비해 모집대상을 확대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관광·마이스 관련학과 학생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파워 유저, 영어 및 제2외국어 가능자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40명이며 6월 18일(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마이스 특강 및 행사에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통역·의전·홍보 등 행사를 지원할 경우 별도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또한 명함과 함께 활동을 마친 후 수료증도 발급한다. 우수 서포터즈에 대한 표창도 마련돼 있다. 활동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다.

모집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팸투어 진행

시는 마이스 홍보를 위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사전답사여행)도 진행한다. 6월 20일, 21일 이틀 동안 지역 내 마이스 시설과 대부도 관광지를 돌아보는 행사로 한국마이스협회 및 국제회의 전문무역업체(PCO), 인바운드(inbound, 해외여행객의 국내 유치) 여행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람회 참가

한편, 시는 6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17’에 참여,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바이어와 셀러, 일반 참가자를 포함해 약 2,7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마이스 전시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 해외 바이어 대상 지역 컨벤션브로(Convention and Visitor Bureau) 유치설명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마이스산업의 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오는 9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안산에서 개최되는 ‘생태관광국제회의(ESTC)’에 대해 홍보한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성명서 발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기구에 지방정부도 참여해야”



전국 24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도시 안산시, 이하 협의회)’는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제까지의 정부는 화력발전소

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만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 간의 갈등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지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달 9일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

별기구 설치와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 발전소 일시 셧다운(shut down, 정지) 도입,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등의 미세먼지 대책과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를 높이겠다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성명서 발표는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그 이행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관리 특별기구’에 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

또한,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와 불가피 할 경우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과 결합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시행도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성명서 발표에 앞서 지난달 22일 안산시에 서 임원 회의를 개최해 새정부와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새정부 공약사항과 관련해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는 안산시를 비롯해 당진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이 참석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알면 힘이 돼요... 막막할 때 두드려 보세요”



ㄷ씨(여·47세)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손을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대부업체에서 생활비를 빌려 쓰게 됐다.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조금씩 얻어 쓴 돈은 어느새 천만원 가까이 됐다. 이자율은 연 20%가 넘는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만 수십만 원. 생활을 펴게 하려고 빌린 돈이 생활을 더욱 주름지게 만들었다. 생활고에 고금리 대출이자까지 이중고에 빠진 ㄷ씨는 현재 한 제조업체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간다.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 주는 곳이 있다는 지인의 소개에 ㄷ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안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 이곳에서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을 통해 대부업체

대출 잔액 800만원을 9%대 은행대출로 전환할 수 있었다. 또한 생계자금 천만 원 까지 지원해주는 저축은행 ‘햇살론’도 알게 됐다. 한 푼이라도 대출이자를 줄여 보려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린 ㄷ씨에게 꼭 필요한 생계자금까지 대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힘이 돼주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공동 참여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임대주택보증금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한데 모아 상담하고 지원한다. 안산을 포함해 전국 36곳에 센터가 있다. ‘미소금융’은 서민들이 창업 또는 사업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금리가 연 4.5%로 저렴하다. 신청 기준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됐다.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 보증으로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연 10.5% 이내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에서 1인당 2천만 원까지 연 8%에서 15% 금리로 빌려주는 ‘사잇돌대출’은 전국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콜센터(1397)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고시원 거주자 일제조사 실시

주거취약 계층 선제적 발굴·지원

안산시가 주거환경이 취약한 복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지역 내 고시원 276개소를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시는 주 소득자의 사망, 장애 및 중한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실직이나 사업실패(휴업이나 폐업) 또는 이혼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 그리고 기타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동별로 고시원을 방문해 안내문을 배부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월세체납자, 실직자,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가구, 고령자 위주로 조사한다.

선제적으로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돼 있다. 우선,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기초생활보장 등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공적 지원이 이뤄지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경우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차상위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후원물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고시원, 모텔, 찜질방 등 주거취약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나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3024)

안산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6월 19일부터 운영 일자리와 복지, '원 스톱' 서비스 제공

일자리와 복지서비스가 동시에 한 곳에서 제공된다. 안산시는 고용노동부 안산고용센터 2층에 178.2㎡ 사무공간을 마련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9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안산시 일자리정책과와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에서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6명의 직원을 파견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용자가 일자리와 실업급여,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따로 방문해야했던 불편함을 없애고, 일자리 안내와 직업훈련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시는 고용노동부 안산고용센터 안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칸막이를 없

애고 협업 체계를 마련해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청 민원실 '365복지상담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흡수되어 6월 말일자로 문을 닫는다. 고용노동부 안산고용센터는 67명의 직원이 실업급여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관리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안산시에서는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2명이 취업지원 안내와 구인구직을 돕는다. 특히 여성가족과 '새일센터' 상담사 2명은 경력단절여성 지원과 직업훈련 등 특화사업을 진행한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는 '일자리와 복지는 하나'라는 개념으로 근로취약계층 밀착 상담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산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직



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278)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동, 수암도서관 · 수암보건지소 개관

주민 숙원 해결... "책도 읽고 건강도 돌볼 수 있어 좋아요"



수암도서관 · 수암보건지소(상록구 원당골길 23-3)가 6월 7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안산의 뿌리이자 역사적 가치를 지닌 안산동은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안산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안산초등학교 운영위원 등 지역주민의 건의로

2013년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해온 수암도서관 · 수암보건지소는 주민들에게 의료 · 건강 · 독서 · 문화를 제공하는 안산동 복지센터의 개념으로 건립됐다. 수암도서관 · 수암보건지소는 497.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복합건물(연면적 1,232㎡)로 보건지소는 2~3층에, 도서관은 4~5층에 자리 잡았다. 보건지소는 일반 · 한방진료, 국가필수예방접종, 임산부 · 영유아 등록 관리, 주민 보건교육, 통합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도서관은 종합자료실, 문화교실, 열람실, 휴게실로 조성됐다. 10,400여 권의 장서와 DVD 563종을 비치하고 있으며 노트북실 11, 열람실 72좌석을 포함한 133석 규모다. 도

서대출, 반납, 예약, 상호대차 등 도서관 서비스는 안산시 타 도서관과 동일하게 제공되며 독서교실 등 문화행사도 운영될 계획이다.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읍성, 안산향교 등과 더불어 안산동이 발전하는 데 도서관 · 보건지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숲소리 어린이집 권민정 원장은 "외진 동네라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책에 관심가질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아요."라며 반가워했다.

◇ 문의 :수암도서관 (031-481-3967~9) 수암보건지소 (031-481-5886~8)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시, 제9차 대부미래포럼 개최

오랜 숙원 사업, 에너지타운 조성 관련 논의



안산시는 지난 8일 대부아일랜드CC에서 관계자 및 대부동 주민대표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대부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도 에너지타운 내 LNG위성기지 설치 및 연

료전지발전소 건립 등 향후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계획과 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백승문 대부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상업용지에서 구봉도 구간에 신설도로가 공사 중으로 도로공사와 병행해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면 시민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광남 대부동 통장협의회장은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며 "설치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주민 참여로 공감대를 형성, 에너지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대부도 권역단위의 에너지 계획과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타운 조성, 대부도 발전위원회의 구성 등이 궁극적으로 대부도를 탄소제로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주민 설명회 개최, 국 · 도비 확보 등을 진행, 올해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문의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031-481-2840)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⑥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

뮤직비디오, 기업 홍보영상 제작 프로덕션

빵필름

또 하나의 세상,
SNS 세계에서 풀어내는 이야기”



유튜브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수익을 내는 채널이 많이 생기자, 이들을 묶어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가 생겼다.

인터넷 스타를 위한 기획사를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 채널 네트워크)이라고 부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 세계 영상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1인 미디어와 MCN이다. 미국에선 MCN을 통한 1인 미디어가 시장성과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점차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어섬니스 TV, 플스크린, 메이커 스튜디오와 같은 기업들이 메이저 미디어에 인수·합병되거나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다양한 MCN 스타트업 업체들이 설립되고 있다.

예대캠페에 입주해 기존 영상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수익을 창출하는 '빵필름(대표 이영천)'을 찾았다.

1인 미디어 시대, 영상 콘텐츠의 매력에 빠지다 교회에 다니던 스물일곱의 영천 씨에게 광고영상을 만들어보라는 특명이 주어졌다. 인터넷을 뒤지며 영상을 만들었고, 영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영상제작에 매달려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생애 첫 작품이 탄생하던 2013년, 뒤늦게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그는 과감히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뮤직비디오, 기업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프로덕션 '빵필름'의 이영천 대표. 이름 때문에 얻게 된 '빵천'이라는 별명과 '생명의 떡'이라는 종교적 의미의 브레드(Bread, 빵) '빵 터지자'는 의지를 브랜드에 담았다. 프리랜서 시절, 스텝으로 작업에 참여했던 친구 2명이 팀원으로 합류했다. 이들은 각자 1인기업의 형태로 기획, 마케팅, 운영, 영업까지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보면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모바일 영상 콘텐츠 분야는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영상 분야에서 가능성이나 재능을 찾았다면 감성이 말랑말랑할 때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니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빵필름이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정키'의 '부담이 돼'는 멜론과 인기가요에서 1위를 차지했고, 가수 겸 작곡가 '이 트라이브(E-TRIBE)'와도 작업을 했다. '풀무원', '대림대학교', '코트라' 홍보영상도 제작하는 등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문화콘텐츠학과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졸업논문만 남겨놓은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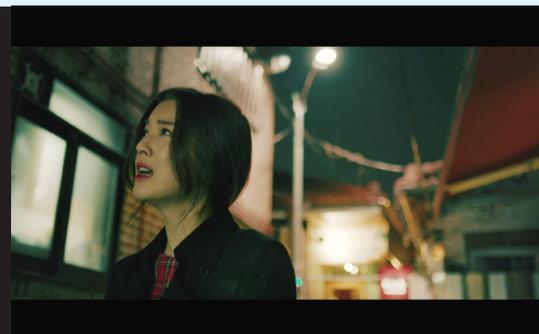
네 살, 한 살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육아에도 많은 부분 참여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꿈을 적극 지원해주고 아내에게 고맙다고 했다.

크리에이터는, 말랑말랑한 감성을 잃지 않는 것

빵필름은 짧은 단편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웹 드라마, 다큐 등 자체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1인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러 콘텐츠가 모여 채널이 되면 하나의 인터넷방송국으로 규모를 확장시키는 게 목표다. 현재 여행가, 뷰티 크리에이터 등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젊은이들의 이야기 '청춘 쓰다'를 제작 중이다. '쓰다'는 '쓰지(bitter)'만 '써야하고(write)', 우리가 '써(use) 주겠다'는 의미를 담은 영상이다.

“VR, 360도 카메라 등 여러 형태의 장비가 나오는 시대에 순간순간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때가 되면 누군가를 멘토링하는 위치에 있겠지요. 직업의 개념이 고정화되어 있지 않을 미래, 전문성은 갖추되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겠죠?”라며 스스로를, 청춘들을 다독인다.

◇ 문의 : 빵필름 www.facebook.com/bbangfilm 신선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음악이 있는 청소년 드림캠프! '긍정의 힘'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가족이 되어 드립니다"



가출청소년들이 함께 먹고 자며, 춤과 노래, 뮤지컬 공연을 연습하는 생활공동체 '긍정의 힘'을 찾았다.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정의·평화·비폭력 드림캠프'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예술아카데미자 뮤지컬 극단, 씬터이다.

단장 정창욱 씨는 소외되고 외면 받은,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청소년들이 다시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꾸리고 서로를 치유하며 잠재된 선한 마음을 발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안산 고잔동에 터를 잡고 드림캠프를 열었다. 올해로 10년째다. 정 단장은 "가정폭력·학교폭력의 가해 혹은 희생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사회로 일찍 나와 새로운 범죄의 가해·희생자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아는 기성세대로서 그냥 방치할 수 없어 '긍정의 힘'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처에 대한 '정신적 치유'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필요한 것이 사랑으로 보살피는 엄마, 아빠, 형제가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다. 서로 기대고 믿어주며 소통하고 이해하

는 것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노래, 춤, 연기와 같은 예술이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함께 부르는 노래는 날카로운 마음을 선하게 녹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긍정의 힘' 뮤지컬 극단은 매주 토요일 7시 중앙역 광장(롯데리아 앞)에서 공연을 펼친다. 대중 앞에 서서 그동안 연습한 것들을 공연하며, 내재됐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높인다. 거리에서 방황하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드림캠프 공동체인 이예은(17세)·김예진(18세) 학생은 "단장님은 항상 옆에서 마음을 잡아주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장님, 원장님, 팀장님 저희들을 바꿔주셔서, 딸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꿈을 이루어서 꼭 보답할게요!"라며 입을 모아 정다운 마음을 전했다.

드림캠프의 큰형님을 자처하고 있는 정창욱 단장과 정우혁 팀장은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상급학교에 가거나, 과거 범죄에 연루됐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동생들을 보면 우리 모두가 참 값지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기 바란다"고 했다.

◇ 문의 : '긍정의 힘' 뮤지컬 극단(010-3266-9009)
김희경 명예기자 kepa-korea@hanmail.net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효자·효부 10명 시상 대상 수상자 김효정 씨, "이만하면 행복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는 효행이 뛰어난 안산시민 10명을 선정해 지난 5월 23일 효자·효부상을 시상했다. 올해 14회째다. 수상자는 효행대상 김효정(56세·여), 효자상 김명용(64세·남), 효부상 강안나(33세·여) 씨와 효행상 신미희(60세·여), 박후신(53세·여), 최연숙(59세·여), 김윤희(55세·여), 김순길(59세·여), 김인숙(54세·여), 시미정(50세·여) 씨 등 4개 분야 10명이다.

시각장애1등급 시어머니(96세)와 척추완전축만으로 거동을 못하는 친정어머니(86세)를 극진히 모신 공로로 효행대상을 수상한 김효정 씨를 만났다.

시각장애 시어머니, 거동 못하는 친정어머니를 동시에

"6년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동서가 모시고 있었는데 맘머리로서 마냥 두고 볼 수가 없었죠. 줄곧 누워만 계시서 욕창이 가시지 않는 시어머님은 통조림 환자식만 수저로 떠 넣어드려야 했는데, 4년 전부터 빨대와 젓병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부드러운 빵도 입에서 녹여 드실 만큼 기운을 차리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몰라요." 효행대상자 김효정 씨의 말이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시누이가 요양병원으로 모시자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



는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김 씨는 4년 전부터 친정어머니도 모시고 있다. 구부러진 허리로 네 발로 다니며 이모네서 집안일을 하던 친정엄마를 돌보고 싶었고, 그 제안을 남편이 흔쾌히 수락해주었다. 김 씨는 "부르기만 해도 눈물 나는 이름, 엄마"라며 "밤낮없이 두부를 만들어 팔며 고생하신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 자신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한다.

"장모님 허리를 고쳐주겠다."는 남편의 고마운 마음에 그녀도 가까이 효부노릇을 자처했다. 주변의 "대단하다"는 칭찬에는 "누구나 맞닥뜨리면 다 한다."며 손사래를 친다.

김효정 씨는 새벽부터 집 앞 골목을 쓸고 폐지를 수거해 kg당 140원짜리 셈을 받아온다. "내가 조금 고달프면 거리가 깨끗하고 남들이 행복합니다. 3년 전에는 갑상선항진증으로 돌출된 두 눈을 수술했지만 합병증 없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편한 것만 추구하고, 애지중지 자식만 바라보고 있어요. 부모한테 잘 해야 자식도 보고 배우는 건데요."라며 안타까워한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남편, 손주와 함께 사는 작은 집에 사랑이 넘치는 이유다. 중학생 손자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김 씨는 10년 전에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했다. "방문 요양사에게는 4시간을 인정해주는데, 내 부모를 모시는 건 1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돈을 벌기 위해 내 부모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바로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박한 세상이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기 바랍니다."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이만하면 행복합니다."며 효를 실천하는 그녀의 삶이 메아리로 울려온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오는 9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안산 화랑유원지 일대 개최... “정원, 도시의 숲이 되다” ‘천연 에어컨, 도시숲’ 늘려 성공적 도시재생 기대

‘도시숲’이 뜨고 있다.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여름, 반복되는 폭염주의보의 대안으로 도시숲이 각광받고 있다. 1인당 생활권에서 도시숲 1㎡가 늘어나면 여름 한낮의 온도를 1.15도 낮출 수 있다는 조사와 함께, 높이 8미터의 플라타너스 나무 한 그루가 에어컨 10대에 맞먹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최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91%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철 도시의 열기를 낮추는데 ‘도시숲’만 한 것이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숲의 도시’를 선언한 후 ‘숲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도시’ 안산에서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개최된다.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및 고잔동 주거지역 일원에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다.

안산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약 187,000㎡의 광활한 부지에 메인정원과 마을정원, 초화원 등이 꾸며져 관람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화랑유원지 내 약 103,000㎡에 조성되는 메인정원은 박람회의 모델정원으로 각종 행사가 펼쳐지며, 고잔동 주거지역 33,000㎡와 소생길 350m에는 시민들이 참여해 만드는 마을정원 가꾸기로 채워질 예정이다. 또한 현 캠핑장 옆 부지 51,000㎡에는 해바라기 등 초화류를 식재한다.

이번 박람회는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가꾸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으로 조성되며, 더불어 시민정원사, 마을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원문화 진흥을 이끌어 갈 주체 양성도 목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지난 6월 9일 ‘시민정원추진단’ 발대식을 진행했다.(관련기사 9면)

모델정원을 위한 공모도 진행 중이다. 작가·일반·대학생 부문 등 3개로 나눠 각각 10개소, 5개소 등 총 15개소에 대해 참여형 공공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 부문이나 홈 가드닝 전시회는 별도로 모집한다.

시민정원추진단의 마을정원 가꾸기는 세월호 참사 최대 피해지역인 단원구 고잔동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 및 치유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다. 꼬마나 부모 정원사를 모집해 교육한 후 빈터나 마을길, 빌라 화단에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부대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경기도 및 안산시 지역 내 문화예술 아마추어 동아리나 기관·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시민참여형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국제도시숲 컨퍼런스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 관련 전문가 그룹의 워크숍 등도 준비돼 있다.

이번 박람회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숲의 도시 안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참여해주셔서 안산시의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특히 천연 에어컨으로 각광받고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는데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경기문화정원박람회를 보름 정도 앞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아시아 도시 중 최초로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 ESTC’도 개최한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민정원추진단 ‘출발’ 본격 준비 돌입... “생태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자”



안산시는 지난 6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업무협약식 및 시민정원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들어갔다. 시민정원추진단은 정원문화 촉진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 마을정원, 자원봉사, 정원문화, 정원 산업의 5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분과위원장과 팀장을 중심으로 정원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들은 정원과 관련한 참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거나 공연 준비에 나서며, 마을정원 조성 참여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안산시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안산환경재단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신윤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를 시민정원추진단장으로 위촉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정원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에 놀랐다. 안산은 전국적으로 녹지율이 높은 환경도시로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생태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윤관 단장은 “정원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숲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안산시가 숲의 도시로 나아가는데 이번 박람회가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원을 가꾸고 아낄 줄 아는 시민들이 결국 숲의 도시 주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시민정원추진단은 숲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생태시민을 발굴·육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피동 주민자치위, 어린이공원에 ‘캐릭터 팻말’ 설치 “동네에 대한 애착심 키울 것” 기대



상록구 월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내 어린이공원 8곳에 캐릭터 팻말을 설치했다. 팻말은 주민자치위원회 생활환경분과 소속 위원들이 3개월여 동안 적극 참여해 18개를 제작했으며, 5월 23일 행운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월피·월성·월광·부루지·원왕·성모·한빛어린이공원에 각각 설치했다. 최동숙 생활환경분과장은 “조원희 위원의 제안으로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마다 놀이터에 대한 명칭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집 앞 놀이터에 이름표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나무를 잘라 기둥을 만들고 나무판 위에 POP 작업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밑그림부터 채색까지 정성을 들여 완성했다. 마을 어른들이 직접 제작한 팻말을 보며 자라날 아이들이 만들어갈 월피동. 그 이야기가 어떤 색깔로 그려질지 기대된다.”며 뿌듯해했다. 임형철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들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캐릭터 팻말이 어린이공원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공원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우리 동네에 대한 애착심을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월피동 주민센터(031-481-5859)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카페, 공동부엌, 공연연습실, 목공방 마련

주민들이 만든 마을 공동체, 복합문화공간 ‘마을숲’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마을숲협동조합(이사장 김용자)이 운영하는 이곳은 마을 카페와 공동부엌, 댄스연습실 및 밴드연습실로 구성돼 사동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터전이 될 전망이다. 마을숲협동조합은 2010년부터 사동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한 감골주민회가, 2013년 안산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카페를 열면서 시작했다. 재작년부터 마을 목공방, 공동부엌 등으로 사업이 확장되면서 좀 더 넓은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마을숲’은 감골도서관 버스정류장 앞 건물 2층 48평 규모의 공간을 임대한 후 리모델링했다. 회원들이 지난겨울부터 설치물을 직접 철거하고 청소도 도맡았으며, 남성 회원들은 이사를 책임졌다. 내부 인테리어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일부 지원을 받았고, 그 외 부족한 부분은 시민과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후원했다.

‘마을숲’에서는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카페에선 월요일 오전 10시에 쉼트로 소품과 가방을 만드는 ‘손질’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손으로 직물을 짜 작품을 만드는 위빙수업이 진행된다.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여행이 주는 의미와 여행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여행인문학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동부엌에선 금요일 오후 2시 장 담그기, 치즈 만들기 등 전통음식을 배울 수 있다. 댄스연습실과 밴드연습실은 주민들이 공간을 대여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청소년 댄스동아리팀과 밴드 연주를 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다. 건물 지하에 있는 마을숲 통나무 공방에선 성인을 대상으로 수준별 목공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부터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로 선정돼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목공교실이 열린다. 김용자 이사장은 “마을숲이 세대를 초월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든든하고 탄탄한 마을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며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조합 활

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문의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감골주민회 이영임 대표는 “우리 동네가 최초로 마을카페, 목공방 등을 만들어나갔다. 자생적인 주민모임이 다양한 사례로 이어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전 카페보다 4배 더 넓어진 공간에서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을숲’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문의 :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12 2층(031-408-7601)
송보림 명예기자(treehelper@gmail.com)





안산그리너스FC, “신생팀이지만 만만치 않다” 리그 1위 경남에 3대3 아쉬운 무승부

안산그리너스FC가 11일(일) 저녁, 홈구장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 16라운드 경남FC와의 경기에서 3:3으로 무승부를 거뒀다. 경남은 현재 챌린지 리그 1위팀이다. 지난 4월,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양 팀의 첫 맞대결은 경남의 3:0 승리였다. 당시 안산은 열심히 싸웠지만 패했고, 시즌 첫 3실점을 내준 상처가 남은 경기였다. 원정에서 받은 상처를 되갚기 위해 안산은 필승을 다짐하며 라울, 나시모프 투톱을 앞세웠다. 그 밑에는 김명재, 장혁진, 손기련, 유연승이 허리라인을 받쳤다. 또, 경고누적으로 결장한 박한수의 공백은 김민성이 대신했다. 전반 '쓰리백'으로 나선 안산은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남에 맞서 초반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다. 계속되는 경남의 공격에도 골키퍼 황인재의 선방에 전반 무실점을 이어갔다. 어려운 경기를 풀어나가던 중 36분 오윤석의 슈팅으로 안산의 공격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이어진 이건의 회심의 유효슈팅도 나왔지만, 결국 전반전은 0대0으로 득점 없이 마쳤다. 안산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정경호와 한건용을 투입해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했다. 그 결과 후반 13분에 경남 수비수의 실책을 틈타 라울이 선제골을 기록했다. 또 후반 19분에는 장혁

진이 내준 패스를 교체 투입된 정경호가 골로 연결했다. 이흥실 매직이었다. 하지만 2분 뒤 경남의 프리킥 상황에서 정원진이 올린 크로스를 박지수가 득점하며 2:1로 추격을 당했다. 그러자 또 다시 안산은 후반 31분, 장혁진의 투지로 올린 공을 라울이 헤딩, 득점으로 연결하며 다시 3:1로 달아났다. 하지만 상대는 리그 1위 경남이었다. 후반 39분 최영준, 40분 송제헌의 득점이 잇달아 터지며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안산은 류현진을 투입하며 결승골을 위한 총공세를 펼쳤으나 경기는 그대로 끝났고, 경기 결과는 3:3 무승부였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흥실 감독은 “2점 차의 리드를 따라잡힌 것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보안을 해야 한다”며 “아무리 선두라도 홈에서 안산을 상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3일(토)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15라운드 경기에서는 득점 없이 0대0으로 비기며 무승부를 기록했다. 안산은 그동안 원정 6경기에서 승리나 무승부 없이 모두 패배한 이후, 지난 성남전에서 첫 무승부를 기록하며 소중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었다.

안산톡톡도시문화포럼

“사라져가는 우리동네 놀이터, 다시 만들어요”

안산톡톡도시문화포럼

5/16 ~ 7/4 화요일 6:30 p.m.

우리동네 놀·이·터

일시 5/16 ~ 7/4 (7주 간 진행) 매주 화요일 6:30 p.m.

장소 코두물정류장 (고잔동 660 광운상가 202호)

대상 우리동네 놀이터를 함께 만들 누구나 환영

참가비 2천 원 (순천임시비 별도)

신청문의 오병훈 (010-6248-0510)

- 5월 16일 '왜 놀이터인가?' 장태호
- 5월 23일 '우리 동네 놀이터 놀이' 박영호
- 5월 30일 '연하고 있는 놀이터' 신영호
- 6월 6일 '공간 활용성' 김태호
- 6월 13일 '안전 관리' 김기현
- 6월 20일 '우리 동네 놀이터' 김민
- 6월 27일 '우리 동네 놀이터' 김민
- 7월 4일 '우리 동네 놀이터' 김민

안산의 놀이터를 새롭게 구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바로 '우리동네놀이터'다. '왜 놀이터인가?'라는 질문을 첫 시간으로, 놀이터에 대한 강연도 듣고, 토론도 하며, 그 중요성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소비'로 연결되는 놀이 외에는 점점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정녕 '놀이터'가 주는 가르침이 없을까. 안산의 놀이터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된 '우리동네놀이터'는 2015년 문화예술인들 12명이 만든 모임, 안산톡톡도시문화포럼에서 시작됐다. '세월호 참사에서 헤어 나오기 바빴던 사이, 우리가

미뤄둔 중요한 가치들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안산의 문화로 스며들 수 있을지 연구해왔다. 그러던 중 2017년 현재까지, 안산에 120개의 놀이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관리가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없는 놀이터는 하나 둘 주차장이나 공터로 변해갔다. 우리동네놀이터는 시민들과 놀이터에 대한 추억들을 서로 공유하고, 좋은 놀이터의 사례를 조사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간 더 이어질 예정이다.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들과 함께 놀이터를 구상할 수 있으며, 순천 놀이터 탐방에도 함께 할 수 있다. 7월 4일까지 7주 동안 매주 화요일 6:30분에 '꼬두물정류장(고잔동 660 광운상가 202호)'에서 진행된다. 다음 주제는 '공간과 창의성'이다.

문의 : 오병훈(010-6248-0510)
유가희 명예기자_425170@naver.com

안산용신학교

시민들과 함께 하는 흥겨운 사물놀이



교실에 들어서니 사물놀이 합주 하모니가 귀에 쟁쟁하게 울린다. 늦은 오후 나른해진 몸과 마음을 맑게 깨운다. 북, 장구, 팽과리, 징을 다루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안산용신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 내외국인을 포함 약 20여 명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사물놀이 공연을 연습하고 있다. '시민이 만드는 전통문화공연'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겨레열 살리기 운동본부 안산지부(이하 겨레열본부)' 주최로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겨레열본부 관계자는 "전통문화 향유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험 및 연습 공연으로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이주민들에게 한국 전통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시민이 만드는 전통문화 공연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온 김해복(31세) 씨는 "용신학교 사물놀이 덕분에 한국음악을 알게 됐다. 모든 악기들의 소리가 참 좋다. 북을 치면 힘이 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혼자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뤄 연주하며 협력이라는 것도 배운다."고 했다.

백민경 강사는 "이주민들과 어르신들에게 전통공연인 사물놀이를 가르치는 데 무척 보람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를 보면 절로 힘이 난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용신학교 '시민이 만드는 전통문화공연'은 6개월의 연습을 마친 후 오는 9월 무대에 올려 공연할 예정이다.

◇ 문의 : 안산용신학교(031-494-0675)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안산시여성비전센터, 계절특강

봄 향기 솔솔 나는 집술 빚기 '인기'



"옛 선인들은 봄에 두견화 진달래를 넣고 술을 빚었습니다. 개나리, 둥굴레, 생강나뭇꽃, 매화, 복숭아, 아카시아 등 다양한 재료가 술의 향기를 더해줬는데요.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꽃잎이 들어간 백화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이 좋습니다."

안산시여성비전센터 류규형 강사는 "일제에 의해 맥이 끊어졌던 가양주의 전통이 다시 서서히 살아나고 있음을 사람들의 관심에서 느낀다."고 했다.

예전에 집에서 빚던 술의 목적이 '봉제사접빈객', 즉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였다면 최근의 관

심은 '내 몸의 일부가 되는 음식을 직접 만들겠다'는 정신과 함께 '자기표현이자 다양한 맛을 추구하는 취미의 영역'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수강생 김순자(사동 · 50세) 씨는 "전통주는 알면 알수록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의 훌륭한 음식문화로, 더 배우고 공부할 생각이다. 젊은이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독일의 맥주나 일본의 사케 이상으로 우리의 전통주가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여성비전센터는 우리의 전통발효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음식문화의 맥을 잇기 위해 봄 · 여름 · 가을 · 겨울 계절에 맞는 전통음식 특강을 마련했다. 봄에는 술을 빚고, 여름에는 식초를 담고, 가을에는 된장과 고추장을, 겨울에는 김치를 담가보는 계절특강이 인기가. 안산시평생학습과 이규석 과장은 "계절특강이 전통의 손맛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어 시민의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여성비전센터(031-481-2762)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책 읽는 안산 / 6월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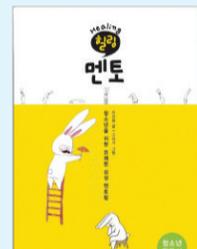
이달의 주제 『힐링이 필요해』



걱정 먹는 우체통

저자 김응외 / 출판사 하늘을 나는교실

공부 스트레스, 친구 문제 등 어린이의 다양한 고민이 담긴 편지들에 대한 답장과 함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학 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독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엄마처럼, 선생님처럼, 친구처럼 작가가 직접 그린 아기자기한 그림들과 진지하면서도 정겨운 편지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준다.



힐링 멘토

저자 오선화 / 출판사 틱움

꿈 찾기와 가족 간의 갈등 회복을 60여 편의 이야기로 풀어낸 책이다. 공부 외에 다른 꿈도 존재하며, 이것을 찾기 위해 들이는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들려주고, 청소년들의 시린 마음을 달래준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고립된 아빠의 고민과 아이와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따뜻한 가족애를 함께 보여주기도 한다.



여유, 내 소중한 삶을 위로하는 시간

저자 최복현 / 출판사 프리스마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해줄 행복 메시지 100개'를 담았다. 생계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해야 했던 힘든 절망의 시기를 긍정적 마인드로 헤쳐온 저자의 진솔한 경험과 삶의 교훈을 주는 촌철살인과도 같은 동서고금의 이야기가 고단한 삶에 지친 사람에게에는 위로를, 절망하는 사람에게에는 희망을, 나를 잃고 바쁘게만 살아온 사람에게에는 나답게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선사한다.

2017 아삭(ASAC) 공연예술제 안산을 대표하는 극단들의 연극열전!



안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만드는 '2017 아삭(ASAC) 공연예술제'가 오는 7월 2일(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열린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 예술단체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7회째를 맞고 있다. 해가 지날수록 관객 사이에 입소문이 나고 지역 공연단체들도 활성화되면서 지난해부터는 공모제를 도입했다. 공모를 통해 올해 예술제에 선정된 단체는 극단 '오아시스', 극단 '동네풍경', 극단 '송곳', 극단 '이유'로 총 4개며, 안산문화재단은 한 단체 당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올라간다. 일본에서 실제 일어난 이지메사건을 통해 '왕따' 문제와 물질만능 사회를 고발하는 극단 '오아시스'의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가 개막작으로 공연예술제의 시작을 열고, 둘째 주는 극단 '송곳'의 <페스트>가 올라간다. 이번이 첫 출연인 젊은 극단 '송곳' 관계자는 <페스트>에 대해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의 원작을 각색하여 부조리한 시대에 넘어지고 상처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마음으로 창작했다."고 설명했다.

셋째 주는 극단 '이유'가 <안 내봐? 못 내봐>를 선보인다. 이탈리아의 작가 다리오 포 원작을 각색해 자본주의의 병폐로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역설적으로 풀어내고, 삭막해져만 가는 현대 사회를 유머러스하게 풍자했다. 예술제의 마무리는 극단 '동네풍경'의 <기다리는 집_Ver.2.0>이 장식한다. 4개 극단의 공연이 끝나면 2015년 ASAC 창작희곡 공모에서 가작으로 당선된 <죽마고우> 낭독공연이 펼쳐진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공연기획부 (031-481-4028)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제10회 안산시민통일걷기대회 화랑유원지 주변 5km 걸으며 '통일염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과 6.15남북공동선언(이하 6.15선언)을 기념하는 취지로 제10회 안산시민통일걷기대회가 6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화랑유원지 소공원장(단원구청 맞은편 3주차장 부근)에서 열린다. 6.15선언은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 최고위급회담에서 공동으로 선언한 것으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는 6.15공동선언발표 17주년 및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 축하공연에 이어 본 행사인 안산시민통일걷기대회가 이어진다. 행사를 준비한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는 올해 10회를 맞는

지역의 대중적 통일행사로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행사 전인 오후 2시부터 시민참여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참가는 사전접수와 당일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며 화랑유원지 일대 약 5km정도를 걷게 된다. 긴 거리가 아니어서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행진으로,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나 청소년 참가자들도 매년 늘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등 번호판, 기념품, 식수, 간식이 제공된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단체에는 최다참가상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잘 표현한 개인 및 단체에는 통일표현상, 3인 이상 가족단위 참가자는 가족평화상이 있다. 걷기가 마무리되면 경품추첨과 문화제, 시상식으로 마무리된다.

◇ 문의 : 615안산본부(031-411-615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06 Culture Calendar

☎ 문의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단원미술관(031-481-0505)

<p>단원미술관 자연미술프로젝트 <큰 숲 미술관> 일시 6.1. ~ 8.20 장소 상상미술공방 전시실</p>	<p>자·연·미·술 프로젝트 큰 숲 미술관 작가와 참여자들이 함께 만든 전시 2017. 06. 01 ~ 08. 20 STUDIO1701(명진, 소연) 단원미술관 상설미술공방 전시실</p>	6	<p>연극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 일시 6-09(금) ~ 06-10(토) 시간 (금) 19:30 (토) 15,19:00 장소 별무리극장 전석 15,000원</p>	9	10
<p>니성악비 피아니스트 김경민의 싱글앨범 "사랑과 추억" 스토리 콘서트 Piano Concert</p>		13	<p>연극 <안 내봐? 못 내봐!> 일시 06-23(금) ~ 06-24(토) 시간 (금)19:30 (토) 15,19:00 장소 별무리극장 전석 15,000원</p>	16	17
<p>클래식 <사랑과 추억 스토리 콘서트> 일시 06-18(일) ~ 06-18(일) 시간 16:30 장소 달맞이극장 전석 20,000원</p>	18	19	<p>부코비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BUKOVIAN STATE PHILHARMONIE ORCHESTRA</p>	20	21
<p>ANSAN PHILHARMONIC + SIA ORCHESTRA SIA 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콘서트 2017. 7. 1(토) 오후 7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25	<p>클래식 <아리아피앙살들> 일시 06-28(수) ~ 06-28(수) 시간 오후 7시 30분 장소 해돋이극장</p>	28	<p>클래식 <ASAC아침음악살롱2 <아리아피앙살들>> 일시 06-29(목) ~ 06-29(목) 시간 오전 11시 장소 달맞이극장</p>	29
<p>클래식 <SIA-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콘서트 A Night of Strings> 일시 07-01(토) 시간 19:00 장소 달맞이극장</p>	30	1	<p>연극 <기다리는 집_Ver.2.0> 일시 06-30(금) ~ 07-01(토) 시간 (금)19:30 (토) 15,19:00 장소 별무리극장 전석 15,000원</p>		



“우리 모내기 했어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현장을 찾은 시의원들이 함께 모내기에 나섰다. (왼쪽부터) 윤석진, 유화, 이상숙, 김동수, 이민근(의장), 김진희, 홍순목 의원 순이다.

안산시의회, ‘현장의 날’ 운영 첨단 산업 전진기지 방문… 사업 이해 넓혀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5월 24일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 팩토리 랩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민생 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해 ‘현장의 날’을 운영 중인 가운데 그 두 번째 방문지로 5월

24일 경기테크노파크와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찾아 지역 산업 전선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 기관의 사업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날 방문에는 이민근 의장과 유화 기획행정위원장,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송바우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상숙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전준호, 손관승, 박은경, 주미희, 김진희 의원이 함께 했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평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다.

먼저 찾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의원들은 테크노파크의 기업 지원 사업의 업종 다각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대책, 청년인큐베이팅 사업의 실효성 제고, 지적 재

산권에 대한 기본 인식 확대 방안 등을 주문하고, 테크노파크 측이 건의한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옥상녹화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도록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방문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랩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보면서 스마트 공장 지원 프로세스와 기술 적용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민근 의장은 “이날 방문한 두 기관은 지역 산업계 역량 강화와 발전 부문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 의회의 관심과 이해가 꼭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의회운영위 개최 회기 및 의사일정 확정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5월 30일 제238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동규)를 열어 제239회 정례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의회는 이날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회의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오는 6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개최된다.

의회는 이 기간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6월 8일~6월 16일)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본회의 3회, 상임위원회 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회를 열어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과 ‘2016 회계연도 결산’ 등 일반안건 9건을 포함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회기 때 상임위에서 보류됐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처리 대상 안건으로 넣었다. 김동규 위원장은 “시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안산보육비전 2020 연구회’ 첫 회의… 市보육정책과 · 어린이집협회 관계자 참석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보육비전 2020 연구회’가 6월 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보육비전 2020 연구회’(연구책임의원 유화, 이하 2020연구회)가 6월 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시 보육정책과 담당자, 어린이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안산의 미래세대인 영유아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육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2020 연구회’는 연구대표의원을 맡은 유화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택, 김진희, 송바우나, 윤석진, 이상숙 의원이 팀원

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0 연구회’는 앞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지침서 관련 학습과 선진 보육정책의 국내외 자료 조사 분석, 선진 보육 사례 탐방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연구 방법으로 삼아 안산 보육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상견례를 겸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시 측의 소개와 함께 어린이집 관계자의 보육 현장의 현황 설명이 있었으며, 아울러 보육 발전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의원들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집행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양분돼 있는 보육 단체의 통합에도 시가 적절한 역할을 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유화 연구책임의원은 “지역 보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인구 절벽과 도시 성장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해법이라는 생각으로 연구에 임할 계획”이라며 “의원들과 합심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경기도와 '승마교실' 운영 · 지원

청소년의 체력을 키우고 장애학생의 재활도 돕는다

참가자 "말과 놀다보면 기분도 좋고 몸도 튼튼해져요"



요즘 신체적 운동뿐 아니라 정서적 교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에도 효과가 있다는 승마가 인기몰이다. 하지만 승마는 높은 체험 · 교육비용으로 일반 대중에게 문턱이 높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안산시가 나섰다. 경기도와 중앙정부도 함께. 안산시는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심신수양,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 정신 · 신체 장애 청소년들의 재활치료와 사회적응력 향상, 도농교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학생승마체험 · 재활승마교실'을 운영 · 지원한다. 입시위주 교육과 과도한 컴퓨터 사용 등으로 청소년들의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막으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말'과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승마체험은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 중 학교장이나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재활승마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승마교실에 참가하면 안전요원과 안전기구 등 구비요건을 충족한 안산 지역 내 승마장에서 소정의 자부담 비용만 내고 총 10회(회당 60분)의 전문적 강습을 받을 수 있다. 단, 재활승마교실은 전액 지원한다.

학생승마교실의 수업은 기승법, 하마법, 평보 및 좌속보, 경속보와 속보 전환 등의 기승과 관련된 부분부터 마구용품 익히기, 굴레와 안장 주요부분 익히기, 말의 주요 습성 익히기, 말의 신체 언어 익히기 등 '말'과 '말과의 교감'까지 전반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학생승마체험과 재활승마교실은 안산해피승마클럽, 트리플밸리, 세계승마클럽, 베리아델승마클럽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승마체험은 현재 대기접수만 가능하다.

학생승마체험에 참가해 강습을 받고 있는 강다원 학생(양지초)은 "처음에는 말을 타는 것이 무서웠지만 배운 규칙대로 친절하게 대하니 말과도 친해질 수 있었어요. 토닥토닥 해주면 말이 좋아해요. 승마장에 작은 동물농장도 있는데 먹이 주는 것도 재밌어요. 동물들과 실컷 놀다보면 기분도 좋고 몸도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생명산업과(031-481-2322)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상록수보건소 & 동산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안산시 상록수보건소가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서지지 및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운영한다.

2016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동산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독거노인들을 우울감이 높은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우울형 자살위험군으로 세분화하여 원예활동, 나들이, 심리치료, 친구 맺기 등 정서지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우울증을 해소하면서 고독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현 소장은 "지역사회 연계의 중요성과 독거노인들의 정서지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상록수 보건소(031-481-5952)



애도의 시간과 이야기

기자수첩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 들려왔다. 세월호에서 고창석 선생님과 다윤이, 은화, 이영숙 님이 돌아왔다. '그 커다란 배에서 한 명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할까', '유해가 배 밖으로 유실됐으면 어쩌나'하는 모든 염려를 뒤로하고 미수습자들이 유품과 함께 돌아오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0여일이 훌쩍 지나야 가족들은 유골로 돌아온 자식, 남편, 부모를 만날 수 있었다.

은화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2015년 겨울, 시청에서 만났던 은화 엄마 ·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다. 조금만 힘을 쥐도 바스라질 것만 같던 부모님의 거친 손등, 오랜 시간 고통을 삭이다 신음에 가까워진 목소리. 당시 인터뷰를 마치고 나는 한동안 멍했다.

세상에는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시간은 말 그대로 참사 당일에 멈춰있었다. 1주일 중 3일은 팽목항을 지켰고, 미수습자들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었지만, 정부를 상대로 말 한마디 속 시원하게 할 수 없었다. 외로운 싸움이었다. 무엇보다 바다 속 아이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인양만 시작하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던 은화는, 그로부터 다시 1년 5개월이 지나

서야 만날 수 있었다. 부모님들이 그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아이 때문이었다. "우리 엄마답다고 아마 내 뒤에서 힘주고 있을 거예요."

참사 이후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목격해왔다.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아파오던 시간은 지났지만, 고통의 당사자들은 여전히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식을 잃은 부모, 언니 · 오빠 · 동생을 잃은 형제자매, 친구를 잃은 청년, 아픈 기억을 평생 안고 가야할 생존자, 그리고 여전히 유해조차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 세월호의 아픔은 안산 곳곳에 많은 조각으로 흩뿌려져 있고, 어쩌면 우리는 당사자이자 목격자이기도 하다.

참사 후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의 과정이 기이하게 변형되던 광경을 3년 동안 지켜봐왔다. 상처는 아물 새도 없이 덧나기만 했다. 다시 충분한 과정이 필요하다. 충분히 애도할만한 시간과 이야기가 필요하다. 어떤 고통은 단 한마디 말도 보낼 수 없을 만큼 엄혹하다. 그때 옆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말없이 들어주는 것뿐.

아직도 세월호에는 5명의 사람이 있다. 기타를 잘 치던 현철이, 만능 스포츠맨 영인이,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돕던 양승진 교사,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던 권재근씨와 혁규, 이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고통은 산이 되고 바다가 됐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배에선 진흙을 머금은 단원과 아이들의 유품이 계속 나오고 있다.

세월호 진상조사는 이제 시작이다. 3년이 넘는 시간이 무색하게, 세월호는 여전히 현존한다.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치유하고 통과했는지 역사가 다시 말해줄 것이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사회 (뇌병변 장애아를 돌보며...)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지 벌써 2년이 다 돼간다. 누구나 다 하는 봉사활동이기에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고,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려 한다. 며칠 전 우리 시설에 한 아이가 들어왔다. 뇌병변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였는데 눈이 참 맑았다. 아이의 부모님은 “나중에 초등학교는 보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마음 아파했다.

나는 아이의 어머니를 보면서 몇 년 전 경북 경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봉사활동을 통해 만났던 뇌병변 1급 장애 어린이가 떠올랐다. 당시 그 아이는 5km 마라톤에 도전했는데, 두 발로 달릴 수 없는 아이는 함께 마라톤에 나선 엄마·아빠가 끄는 휠체어를 타고 달렸다. 양 발이 땅에 닿지는 못했지만 5km를 완주했고, 그날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 중 많은 이들이 그 아이와 함께 달렸다.

두 살 때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그 아이는 평소 폐렴을 앓고 있었고, 폐렴이 발생하면 입원하고 있던 재활병원에서 퇴원한 후 종합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지금은 어찌 지내는지...

뇌병변 아이들은 하루라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몸이 굳어지고 틀어지기 때문에 재활병원을 다녀야 하며, 힘을 주느라 무너지는 치아 때문에 치과로, 폐렴과 천식으로 열이 나고 숨쉬기 어려워 소아과로, 또 경기가 발생하면 신경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뛰어다녀야만 한다. 부모가 무엇 하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힘든 이동을 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역시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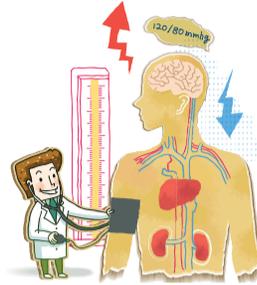
그렇게 어렵게 키운 후에도, 장애아 부모라면 누구나 부딪히는 교육문제까지 겪어야 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아무리 부족해도 기본교육만큼은 가르치고 싶은 게 부모마음인데...

적어도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 장애아들만이라도 기본교육만큼은 꼭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주변 이웃들이 함께 노력해 사회적 지원과 뒷바라지가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 성열봉(안산시 상록구)



술이랑 고혈압이랑?



알코올에는 혈관 확장 효과가 있다. 술을 마신 직후 가끔 실신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는 음주 후 혈관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립성 스트레스에 적응하지 못하는 저혈압이 생김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며, 따뜻한 방안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일어나거나, 서서 소변을 볼 때, 특히 노인에게서 두드러지게 잘 나타난다. 그럼, 술을 마시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녁식사와 함께 2도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직후에는 맥박이 빨라지면서 혈압이 하강했다가, 8시간이 지난 후부터 혈압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며, 음주를 마치고 24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전 혈압으로 돌아온다.

많은 역학 조사에서 1일 기준으로 2도 소주 반 병 이하를 마시는 적절한 음주는 고혈압 발생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이상의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음주와 혈압상승과의 관계는 40세 이후에서,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폭음을 하는 경우나 매일 마시는 경우, 모두 양에 비례해 혈압이 상승하나, 폭음을 하는 경우가 규칙적으로 마시는 경우보다 혈압 변동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술 마시고 난 후 발생한 혈압 상승은 숙취가 해소되면서 정상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일정량 이상의 알코올을 꾸준히 계속 마시면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고정된다. 또, 과도한 음주 습관을 가진 고혈압 환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 비해 약물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다.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술을 끊거나 줄일 필요가 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고혈압 환자는 당뇨나 지방간, 이상지질증, 통풍 같은 동반질환을 많이 보유하게 되며, 심혈관계 합병증도 훨씬 많이 겪게 된다.

금주에 따른 혈압 강하 효과는 1~2주 만 지나도 바로 나타나고, 체중 조절, 저염식, 운동 등과 같은 비약물요법에 비해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호준(심장내과전문의)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이렇게 대처하자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며 사기행위를 벌이는 신종범죄를 말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수법을 막지 못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이 처음 발생한 2006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년 동안 피해액은 6,418억 원에 이른다. 성별로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 남성, 30대 여성의 피해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다음의 사실들을 기억하자.

첫째,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에서는 전화로 “보험료나 세금 등을 환급해 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지 않는다.

둘째, 국가기관(햇살론), 금융기관에서는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며 신용등급조정

비, 공증비, 수수료, 선이자 명목으로도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공공기관(경찰, 검찰, 금감원)에서는 “계좌가 범외에 이용되었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계좌이체를 절대 유도하지 않는다.

넷째,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묻지도 말고 전화를 끊은 후 112로 신고한다. 특히,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할 때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거나 무음으로 설정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만큼, 반드시 학교와 학원의 전화 번호를 저장해 둔다.

최근의 보이스 피싱은 스미싱(문자메시지 활용), 파밍(악성코드로 PC조작) 등 각종 수법을 모두 혼합하여 피해 대상자별 맞춤형 시나리오를 적용, 접근하는 만큼 특히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즉시 112로 신고할 경우 해당은행 상담원과 더 빨리 연결될 수 있고, 30분 내 계좌이체 한 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흔히 골드타임이라고 하는데,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112로 신고하여 관련기관과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늘 보이스 피싱이 나한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





안산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설치장소	주소	상세위치
본오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49(본오동)무인택배함	현관 출입구
와동종합사회 복지관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118(와동) 무인택배함	복지관 건물 옆면 (파출소 방향)
선부2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46(선부동) 무인택배함	동주민센터 후문방향

- ◇ **이용시간** : 24시간 언제나
- ◇ **이용료** : 48시간 무료 이용 (초과 시 매 24시간마다 500원씩 부과)
- ◇ **주의사항**
 - 물품 주문 시 받는다 주소에 "주소+무인택배함" 반드시 명기
 - 물품 주문 시 받는다 휴대폰 번호는 실제 번호 기재 ※ 안심번호 사용 자제(택배 도착 문자 수신이 어려울 수 있음)
- ◇ **고객센터** : 1666-2098

주민신고요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발견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 대상은?** : 간첩 등 국가안보 및 국민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입니다.
 - 간첩, 거동 수상자, 간첩선, 불온 선전물 배포 등
- ◇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국가정보원 : 111 • 경찰서 : 112
 - 국군기무부대 : 1337
 - 군부대 : 1661-1133
-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간첩, 이적사범,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고액 20억원을 지급합니다.
 - ※ 포상금이 통합 인상 됨.

2017년도 안산품기움장학생 (고등학생) 선발

- ◇ **선발대상** : 안산품기움장학생(고등학생)
- ◇ **선발인원** : 1,007명
- ◇ **자격요건** :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 ◇ **접수기간** : 6. 26.(월) ~ 6. 30.(금) 09:00 ~ 18:00 (12:00~13:00 제외)
- ◇ **접수처** :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1, 5층 (사동, 안산시평생학습관)
- ◇ **문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070-4400-8579

재활용 나눔장터

- ◇ **일시** : 2017.6.24.(토) 10~15시
- ◇ **장소** : 안산문화광장 (NC백화점 앞)
 - ※ 재활용품 리폼제품 판매 및 교환/ 환경운동 캠페인 및 친환경 체험행사
-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 ◇ **납부기간** : 2017.6.16. ~ 6.30.
- ◇ **납부대상** : 2017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고지서없이 모든은행 CD/ATM 기기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능
- ◇ **신용카드** : ARS 상록구청 1588-5128 단원구청 1588-6128
- ◇ **문의** : 상록구청 세무1과(031-481-5195) 단원구청 세무1과(031-481-6190)

2017년 하반기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 **공고기간** : 6. 12. ~ 7. 7.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
- ◇ **접수기간** : 2017. 7. 3. ~ 7. 7.
-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체 및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의 1/3 이내), 창업기업 5천만원,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2천만원
- ◇ **접수처 및 융자취급은행** : 협약 금융기관
 - ※ 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KEB 하나, 산업, 씨티
- ◇ **문의사항** : 안산시 기업지원과 ☎031)481-2625
 - ※ 신청서식은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의 고시 · 공고에서 다운로드

소식通

"안산산업 상징자료 모아요" 박물관 소장용... 기증 · 공개구매

안산시는 2019년 개관을 목표로 화랑유원지 내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며 소장품과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박물관은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로서 약 40년간 국가산업 발전의 뿌리 역할을 담당한 상징적 의미와 역사를 담고 있다.

자료는 오래되고 값비싼 것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고 볼 수 있지만 안산산업을 상징하는 것이면 모두 수집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을 대표하는 주요 생산품 및 대표 기술, 각종 산업기계, 생산시설, 설비도면이 귀중한 자료가 되며, 작업복 및 작업도구, 월급봉투 등 노동자 개인 물품, 산업단지 관련 사진 및 영상물 등 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 일체가 대상이다.

◇ 문의 : 안산시 산업정책과(031-481-2102)

야간 출산준비교실 운영 태교 · 임신 · 출산 · 육아 정보제공

임신부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태교 · 임신 · 출산 · 육아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태아와 모성의 정서를 함양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야간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

오는 6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상록수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진행되며, 교육일 기준 16주 이상의 지역 내 임신부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30명까지 받을 수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태아발달과 임부의 변화, 진통 및 분만통증 완화법, 산모와 신생아 관리 등 세 차례에 걸쳐 송영아 안산대 간호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 문의 : 상록수 보건소(031-481-5975)

안산시, 민원실에 '국민인수위원회' 설치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

안산시는 7월 12일까지 시청 365행복드림 민원실에 국민 누구나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창구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다양한 생각을 공유 · 확산하기 위해 지난 달 24일 출범한 위원회는 온 · 오프라인 제안 접수 · 소통 창구 '광화문 1번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제안접수처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전달된 정책제안은 국민인수위에서 직접 내용 분류를 한 후 중요정책은 분석을 거쳐 인수위 종료 시점에 반영하고, 민원 등 즉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기관에 보내 처리한 후 제안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 문의 : 안산시 민원여권과(031-481-2135)

6.14일엔 헌혈의 집에 방문하세요

6.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가장 쉽게 생명을 구하는 방법, 헌혈 6월엔 잊지 말고 헌혈의 집에 방문해보세요

